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1월 26일(금)
--(윤력 12월 16일)--
Пятница
26 января 2024 г.
№ 3 (1207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월 25일은 러시아에서 대학생들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새로운 활주로 절반 완성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기획으로서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의 새로운 이착륙 활주로 건설의 45%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건설 진행 상황을 알렉세이 벨릭 사할린주 정부 총재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건설되고 있는 활주로는 너비가 15m 더 넓어지며, 실제로 모든 항공기를 수용하도록 설계됐다. 시설 건설은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이착륙 활주로의 운영은 2025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알렉세이 벨릭 총재가 언급했다.

반세기 훨씬 전에 건설된 기존의 활주로는 현대적인 요구사항과 사할린 지역의 지진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관계로 새로운 활주로 건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5년-7년마다 주요 활주로를 개선해왔다.

새로운 활주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새로운 활주로의 총 길이는 3,400m이며, 겨울이 되기 전 시공업체가 상부 기초 공사 위에 피복을 깔았고, 800m 공사가 남았다. 이어 운항 안내 및 신호조명 장비 설치 및 눈 녹은 물과 빗물 배수, 청소 시스템과 유도도로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극동 발전은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다"

11개 극동지역의 수장들이 지역개발에 대해 극동지역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이자 러시아 연방 정부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보고 발표는 2023년 극동 사회경제개발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출장회의에서 진행됐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극동에서 지역들과 연방 부처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러시아 연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은 부총리가 거대 지역의 발전을 담당하면서 연방 차원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극동지역 수장들의 보고서를 들기에 앞서 극동 연방관구 발전의 경제지표에 주목하며 "투자유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 건설은 경제발전의 기본이다. 2023년 극동 지역에서 고정자본의 투자유입에 따른 선두주자는 아무르 지역, 사하공화국, 하바롭스크 변경이었다. 극동지역에서 전반적인 투자유입은 전 러시아 지표보다 3배나 높다."고 부총리가 말했다.

주택 건설은 건설산업 상태의 특징이지만 이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살고자 하는 욕구이기도 하다. 극동 연방관구의 3대 선두지역으로는 연해주와 야쿠치야, 하바롭스크 변경이고, 인구 1명당 1m²가 건설된 지표에 따라 가장 선두에 있는 지역은 사할린주였다.

(3면에 계속)

사할린 주, 3일 넘게 강력 풍설 몰아쳐

1월 24일(수) 사할린의 10개 지역에 강력한 풍설로 인한 재난이 선포됐다. 3일(23일-25일) 넘게 초속 25m-30m의 강한 풍설이 몰아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을 비롯해 재난을 당한 지역은 사할린 남부와 중부지역들로 아노아,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홈스크, 토마리,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흐 구역이다. 일부 구역에는 바람은 초당 30미터에 달했고, 한 달 강설량이 4일간 내렸다.

긴급 및 복구 작업을 위해 인력 1,026명 유치되고, 장비 478대 등 배치되었고 256개 긴급 복구팀이 구성됐다.

러시아 비상대책부는 13대의 특수중장비 차량과 100명의 인력을 대기시켰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일부 지역에서 정전 상태가 발생한 가운데 28개 긴급 작업반 62명, 30대의 특수차량이 처리작업을 하고 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사할린 남부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에 동참했고, 이들은 음식과 의약품을 전달하며 눈을 치우고, 사람들이 의료시설에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생활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서비스가 총가동되고 있다고 주 정부가 전했다.

강력한 풍설로 홈스크 - 와니로 노선의 여객선 운항이 취소되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외로 가는 열차를 비롯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노글리키로 가는 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25편의 항공편도 취소되었고, 사할린 지역 간 13개 버스 노선의 운항도 취소되었다. 25일에는 도로에 경량차를 운행하는 것도 금지하였으며, 도로 시야 확보가 좋지 않은 관계로 유즈노사할린스크 - 오하 연방도로 구간의 운행이 제한되었고, 특수 오프로드 차량과 제설 장비 차량 외에는 통행이 제한되었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코르사코브와 홈스크로 이어지는 도로 운행도 통제되었다.

도로 구간들에는 '우랄' 차량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초소를 설치했으며, 학교와 문화센터에도 임시 숙소를 마련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노워알렉산드롭스크에 '라두가(무지개)' 문화센터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휴게소도 마련했다.

1월 24-26일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사할린의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강한 풍설에 따른 처리작업 과정은 주지사의 재난상황센터에서 전



격조정되고 있으며, 도로 및 주택가 정비와 생활안전확보 서비스 활동에 대한 모든 긴급정보가 이곳으로 전달되고 있다.

1월 26일(금) 사할린에서 풍설이 약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도로, 거리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내 제설작업에 나섰다. 가장 큰 문제는 제설 작업에 방해하는 것은 도로에 버려진 차량들이다. 1월 24일 선포된 비상사태는 26일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풍설로 인해 인쇄소 직원들도 출근을 못해 새고려신문도 25일 마감을 하지 못하고 오늘 26일(금) 인쇄에 들어가게 되었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아리랑 장학회, 후원사업 계속 전개



2006년에 사할린에서 사업을 하거나 무역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만든 '사할린 아리랑 장학회'는 2011년에 사할린 한국인 교민회(현 사할린한국한인회)와 통합하면서 장학회 이름으로 사업이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22년 8월에 전에 사할린 아리랑 장학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몇 분이 다시 뜻을 모아 장학회의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2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국교육원의 교실에서 2024년 사할린 아리랑 장학회의 신년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 장학회 임원인 주기호 '한국관' 카페 사장은 2023년 말 현재 장학회 회원 현황을 전했다. 현재 장학회는 사할린 주재 한국인이 중심이 되며 전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 3명(이병일, 김주환, 장원창), KYDO 오케스트라 서천 단장 등 사할린과의 인연있는 분들과 사할린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주로 회원 확장 중이다. 현재 이런 회원은 총 19명이다. 현재 사할린의 정식 회원으로는 '그린 팔라스'회사의 권운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직원 2명(황한철, 박준형), 장용운 '베들레헴'회사 사장, 주기호 '한국관' 사장, 정재우 '독도'식당 사장 등 총 6명이며 그 외 자문위원으로는 사할린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과 김민수 사장이 활동을 하고 있다. 장용운 사장 같은 경우 사할린에 거주한 지 30여년이 되었고, 다른 분들도 15-20

여 년이 된다.

아리랑 장학회는 설립 초기처럼 한민족문화와 한글 보급사업을 후원하는 한편 사할린 사람들과 한 데 어우러져 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모임 참석자들이 이야기했다. 장학회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사실 회장이 없다. 회원들은 필요할 때 행사에 장학회 대표를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회장은 없어도 되지만 총무(박준형)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작년에 아리랑 장학회에서 사할린 말하기대회와 K-pop 대회를 지원했고 새고려신문 기사를 보고 주 콘스탄틴(17세) 학생 뇌종양 수술 지원을 하었다고 보고했다.

장학회는 앞으로 장학사업을 재개할 전망이고 지속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K-문화사업을 후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장학회의 사할린 회원들은 매월 회비 액수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기업 후원, 개인 후원 문제도 논의했다.

회의를 취재한 필자는 사할린 현지인들을 위해 순수 후원을 하려는 '사할린 아리랑 장학회'의 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조건없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삶을 가치있게 만들어주려는 선한 일에 감동했다. 사할린한인의 본보기가 되어준 아리랑 장학회에 감사의 마음과 응원을 보낸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동포, 자녀 모두와 함께 영주귀국 가능해졌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1월 16일 공포... 7월 7일 발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자녀 모두와 함께 고국에 영주귀국할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7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 전체로 동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영주귀국 사업은 개정법률안 발효 전인 6월 30일까지 현행 시행령에 따라 지원자를 신청받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제정됐다.

(재외동포 창, 2024년 1호)

사할린주 정부, 5개 지방자치지역을 위한 현대적인 버스 구입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새로 구입한 현대식 일반버스(파츠(ПА3)) 열쇠 전달식이 거행되었다. 가스연료로 운행되는 버스들은 아니와,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흠스크, 네웰스크의 지역 내 노선을 따라 운행된다. 2023년에 사할린주 정부는 253대의 버스를 구입했으며, 그중 25대 버스가 지정된 지방자치지역으로 이송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지방자치단체 대표들과 버스 운전사들인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축하를 전했다. "여러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내 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차량을 개선하라는 임무를 내렸다. 대통령은 매해 기기 및 장비 개선은 교통제한시설 개발에 핵심적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도시와 지방 간 노선을 위해 새로운 일반버스를 구입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편안한 버스를 확보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25대의 일반버

스를 지방 지역들에 전달한다. 새로운 버스가 주민들을 더욱 편안하게 해줄 거라 확신한다. 이 중요한 전달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59인승의 이 버스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수송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어져 있으며, 에어컨과 정보를 전하는 화면과 스피커, 감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내한성을 강화한 창문은 영하의 날씨로부터 승객을 보호한다. 이번에 공급된 버스들은 버스들 중에서는 가장 넓은 편이고, 또한 상당히 여유로운 출입구를 갖추고 있었으며, 한 번 가득 연료를 주입하면 500km주행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할린주 정부는 지역들을 위해 275대의 일반버스를 구입했으며, 그중 253대가 가스연료로 주행하고 있다.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시에 69대의 버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위해 1000대의 일반버스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모저모

오하에서 대선 참관인을 위한 교육 세미나가 열려

오하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 참관인들을 위한 교육세미나가 열렸다고 사할린주 사회원 측이 전했다.

선거를 앞두고 일반 참관인 준비가 오하지역에서 시작된 가운데 다가오는 주에는 유사한 세미나가 사할린 다른 지역들에서도 진행된다.

교육 세미나는 카르비셰와 7호 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 주제에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례로 단체 활동의 구성과 방법들을 사용했다. 강당에서는 몇 개 그룹으로 나뉘어 참가자들이 각각 공동 논의 결과에 따라 제시된 상황의 또 다른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주장할 기회가 있었다.

참관인은 반드시 객관성과 정직한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상기시켰다. 선거를 앞두고 주요 과제는 선거과정의 공개이다. 오하 지역에서 선거를 위해 60명의 사회활동가들이 감독할 예정이다. 교육 세미나를 종료하며 모두 시험으로 마무리했다.

Обучающий семинар для наблюдателей за выборами президента прошел в Охе

В Охе состоялся обучающий семинар для наблюдателей за выборами президента РФ.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готовка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блюдателей к предстоящим выборам стартовала с Охи.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аналогичные семинары пройдут и в други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учения стал актовый зал школы

№ 7 имени Д. М. Карбышева.

Для повышения интереса участников к теме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к примеру, формы и методы работы в командах. Зал был разделен на несколько групп, а по итогам совмест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каждый из участников имел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ложить и обосновать то или иное решение предложенной ситуации.

Наблюдателям напомнили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являть объективность и честность.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предстоящих выборов — открытость процесса. Следить за выборами в Охе будут около 60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По завершении обучения все прошли итогов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유즈노사할린스크, 눈의 날을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13번째 전 러시아 눈의 날을 기념했다고 지역스포츠부가 전했다.

우리 가가린 시공원에서 3시간 동안 오락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기념일 방문객들은 1천 명이 넘었다. 축하행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통계학' 국민기획의 '스포츠는 생활의 표준' 연방기획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사할린주 스포츠부의 스타니슬라브 튜린 차관은 "이 멋진 기념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드리며, 사할린에서 기념하는 전국 눈의 날 행사는 전통적이며 사할린의 주민들과 방문객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체육행사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행사로는 방문객들을 위해 '즐거움 출발'이 펼쳐지고, 눈싸움 경기인 <눈 사냥>, 3X3 방식의 눈발 축구 경기가 열렸다. 또한 누구나 개썰매를 탈 수도 있었으며, 따뜻한 차와 도너츠를 먹을 수 있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День снег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13 раз отметил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снег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длилась три часа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имени Юрия Гагарина.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стали почти тысяча человек. Торжество организовано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с этим замечате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снега на Сахалине – традиционное и одно из самых любимых физкультурных событий сред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нислав Тюрин.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устроили «веселые старты», состязания по игре в снежки «Снежная охот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футболу на снегу в формате 3х3. Желающие катались на собачьих упряжках и угощались горячим чаем с пирожками.

익스트림 스포츠인들을 위한 호텔, '고르니 워즈두흐'에 건설

사할린주의 '고르니 워즈두흐' 선도개발구역에 235개의 객실을 갖춘 새로운 호텔단지가 생긴다고 주정부가 전했다. 이 시설은 새로운 선도개발구역 대표인 '감마'회사가 건설한다.

"호텔은 '고르니 워즈두흐' 산악스키 중간역에 위치하며, 익스트림 스포츠 애호가들이 주요 고객이 될 전망이다."라고 전해졌다.

호텔 단지에는 패럴림픽 선수들을 포함해 장애인들을 위한 객실도 마련하고 또한 콘퍼런스홀과 레스토랑도 배치시킬 계획이다. 새로운 기획 건설 시행은 2027 말로 계획하고 있다.

(8면에 계속)

'한국인의 밥상', 사할린에서 촬영

지난 1월 13일(토)부터 20일(토)까지 일주일간 한국 KBS다큐멘터리 <한국인의 밥상> 촬영팀(선희돈 피디, 서연택 촬영감독, 김지정 조연출)이 사할린을 찾아 사할린의 향토 음식을 취재를 하였다. <한국인의 밥상> 다큐멘터리는 '그 지역에 가면 지역 음식이 있다. 지리적 환경과 사람들의 습결과 지혜가 어우러져 역사가 되고, 문화로 응축되어 나타나는 것이 그 지역 대표음식이다. 대표음식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와 문화를 영상과 깊이 있는 취재로 '푸드멘터리'를 방영하고 있다.'고 포털에 소개되어 있다.



사할린을 방문한 촬영팀은 사할린동포 여러 세대들을 만나 사할린에서 동포들이 차리는 음식도 촬영하고, 강제동원자인 김윤덕 할아버지의 유족들도 취재하며, 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와 그 가족의 이야기 등을 취재했다. 방송에는 '루고위예'카페 김 마리아 사장, 주 한인협회 이 세르게이 부회장, 그들의 가족 등이 출연한다. 취재팀은 코르사코브의 방향의 언덕, 고 김윤덕 어르신이 사셨던 시네고르스크 마을과 그분의 묘지,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그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레닌광장, 성탄 성당 등을 촬영했다.

사할린에 대한 취재는 새고려신문사와 사할린주한인협회가 협조했다. 또한 방송에서는 사할린한인에 대한 역사와 애환을 담은 새고려신문 이예식 기자의 사진들도 인용할 계획이다.

<한국인의 밥상>푸드멘터리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는 KBS의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요리를 대상으로 취재해 방영하고 있다. 내레이션은 한국에서 유명한 최불암 배우(1940년생)가 진행한다. <한국인의 밥상>의 사할린편은 2월 8일에 방송할 예정이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레닌광장에서. 왼쪽으로부터: 선희돈 피디, 서연택 촬영감독, 김지정 조연출)

(배순신 기자)

사할린 항구에 1년 만에 320만 톤 화물 환적 운반

사할린 항구에서 지난해 종결에 따라 320만 톤의 화물이 환적 운송되었다고 차사할린 교통 및 도로산업부 장관이 전했다. 적재된 물량의 1/3이 샤흐초르스크 항구에서 처리됐다.

"2023년 사할린 해안 항구들에서 320만 톤의 화물이 운송되었는데 이는 2022년보다 2%가 증가한 양으로 사할린 지역에 투자계획의 시행으로 화물 운송은 더욱 증가했다."고 전했다.

코르사코브 항구에서는 약 200만 톤이 환적 운송되었는데 게다가 컨테이너 물동량은 12%가 증가한 1백만 톤에 달했고, 11%가 일반 화물로 52만 톤에 달했다.

코르사코브 항구는 사할린 지역의 생활 보장을 위한 주요 물류의 절반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샤흐초르스크 항구는 지난해 130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했는데 주로 석탄제품이었다. 교통 및 도로산업부에 따르면 이러한 화물 운송량은 전년도보다 21% 증가했다고 전했다.

일제 해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난항

일제 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됐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유해 국내 봉환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해를 넘겼다. 일본에 있는 우키시마호 사건 희생자 유해들과 중국 하이난에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들도 상대국의 비협조 등으로 봉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8차례 사할린 한인 유해 봉환 신청을 받은 끝에 총 17위의 유해를 선정해 봉환을 추진했다. 애초 지난해 9월 중 봉환을 완료해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치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 봉환 협조가 어렵다는 뜻을 전해와 연기됐다.

사할린은 일제 강점기에 수만 명의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 탄광·토목공사장·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린 현장이다. 학계에서는 2차대전 종전 당시 4만명 이상의 한인이 사할린에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들은 해방 후에도 일본 정부의 방치와 미수교국이었던 옛 소련과의 관계 탓에 1990년 한·러 수교 전까지 귀국길에 오르지 못했다. 상당수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이국에서 별세했다.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 한인 묘지 발굴·유해 봉환에 합의한 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총 71위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다. 이후 코로나19로 봉환 추진이 어려워졌고, 지난해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봉환을 재추진했으나 전쟁으로 봉환 길이 다시 막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올해 다시 러시아 정부와 협의해 봉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연초에 계획을 세워 러시아에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창>, 2024년 1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소식

한인디아스포라 블리츠 체스대회 개최

지난 1월 14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스클럽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와 사할린주 체스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연례 한인디아스포라 중 단시간 속기 체스대회가 열렸다. 언제나 그렇듯 체스연맹의 전문가들은 전체 토너먼트 과정을 명확하고 유능하게 조직하고 수행했다. 스위스 방식으로 진행된 마지막 9라운드까지의 토너먼트 결과는 흥미로웠다.



여러번 챔피언 왕관을 차지한 림 알베르트가 상대방보다 0,5점수로 앞서며 1위를 따냈다. 이기수 선수와 전 드미트리이는 같은 점수를 따내며 2, 3 위 결정은 추가 계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2등은 이기수, 3등은 전 드미트리가 차지했다. 고령층 선수들 중에서는 김석감 씨와 이양춘 씨가 우승했으며, 여자 중에서는 공 알리나가 가장 많은 점수를 따냈고, 학생 중에서는 밤비조 미하일과 신 보리스 선수가 우승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림종환 회장은 이날 체스 클럽의 전문가, 경기 심판장 류드밀라 마리니나와 대회 후원자인 김 빅토르와 중국 동포사업가 체네니 채에게 감사를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는 한인디아스포라를 위해 올 8월에 블리츠(단시간 속기) 체스 토너먼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뽕세 만들기' 요리교실 열어

지난 21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회장 림종환)에서 '뽕세 만들기' 요리교실이 열렸다.

시 한인회 측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으로 시 한인회 회원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의 신청을 받고 '뽕세 (사할린동포식 왕만두) 만들기' 요리교실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틀 만에 참가신청 점수를 마쳤는데 지원자는 다양한 민족의 남녀노소였다., 이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임원인 유경옥 씨와 최 나탈리아 씨의 지도로 '뽕세' 조리법과 기술을 익혔다. 요리교실의 참가자들은 뽕세를 만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뽕세 만들기 마지막 단계는 찌는 것과 자신이 만든 것을 시식해보는 가장 긴장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선물로 '뽕세' 10개씩 받아들고 고마움과 기쁨을 나타냈다.



시한인회 측은 다음 요리교실에서는 '떡볶이 만들기'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뽕세 만들기' 요리교실이 인기가 많아 다시 한 번 이 요리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할린한인연합회 정보'가 텔레그램 방송을 통해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극동 발전은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다"

(1편의 계속)

극동 연방관구에서는 1년간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220개의 주요시설 건설이 이뤄졌고, 대통령 통합보조금을 통해 74개의 주요시설들이 건설되었다. 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의 말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 총생산량은 약 10%가 증가했으며(극동 연방관구 4%, 러시아 연방2.8%), 생산액은 1조 5천억 루블리에 달했다. 고정자본에 투자 증가율은 2022년 대비 11% 증가해 러시아 평균지표를 넘어섰다. 사할린주는 국가계획 달성 수치에 따른 순위에서 러시아 우수지역 3위 안에 들었고, 극동 연방관구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스포츠, 교육, 의료, 문화 등 22개 시설들이 건설되었고, 대통령 통합보조금의 일환으로 150가구를 위한 주택과 쿠릴스크와 노글리키 마을에 학교 등 8,100m²가 건축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미성년센터와 직업교육기관에 5개의 현대적인 기술인센터가 개설되었고, 스포츠 학교가 재건축되었다. 또한 주 중심에 현대적인 신

공항 청사가 운영을 시작했다. 세계적 수준의 '사할린 테크' 캠퍼스가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사할린 지역에서 3년 연속 1명당 주택 1m² 이상이 건설되었다. 노후주택기금으로 14만1천m²에 6천500명이 이사했는데 이는 러시아 전체에서는 기록적이었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극동의 발전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다. 극동은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다. 선도개발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에너지 이용 세금 균등화, '극동 헥타르' 기획에 대한 법안이 채택되었고, 극동지역에 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많은 정책들과 그 개발의 속도와 품질도 채택되었다. 개발은 법안과 표준 규정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은 마가단주와 야쿠치야, 사할린, 하바롭스크 변경, 연해주, 히브리 자치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수군사작전을 치르고 있는 우리는 승리를 위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일을 해야 하고, 군대는 강력한 국가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요약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утин может посетить Пхеньян

Москва/Сеул, 22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явила в воскресенье, что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посетить Пхеньян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и страна готова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ближайшего друга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 величайшей искренностью».

Канцелярия помощник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делала это заявлени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Центральны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агентством Кореи (ЦТАК), через два дн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Чхве Сон Хи вернулась из поездки в Москву.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еще раз выразил глубок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кретаря Ким Чен Ына посетить Пхеньян в удобное время и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посетить КНДР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сообщило ЦТАК.

В пятницу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Кремля Дмитрий Песков заявил, что визит Путина на Север обсуждается двумя сторонами «п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каналам». Последний раз Путин посетил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июле 2000 года. Канцелярия помощник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а, что Пхеньян и Москва «достигли консенсуса во взглядах» по региональным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вопросам, касающимс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бе стороны признали, что отношения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независимыми сувере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лужат мощн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крепостью и движущей силой в защит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одействии построению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а»,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ошла лекция Виктора Щеглова

19 января в рамках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по вопросам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шла лекция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заместителя директора по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е и развитию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иктора Щеглова. Лекция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интересной теме – репатриации и компенсации в Германии и Израиле 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менения их опыт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Изучение политики этих стран необходимо, поскольку именно Германия и Израиль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силу тех или иных причин бы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возвращении немцев и евре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и разрабатывали разнообраз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репатриации.

После лекции завязалась оживленная дискуссия.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рактика политика Германии и Израиля велась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государство принимающей стороны заинтересовано в привлечении рабочей силы, с другой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тендуют на особые условия программы репатриации в силу сложившихся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ичин. Какие именно услови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сложатся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воли всех вовлеч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9 февраля 2024 г. состоится последнее мероприятие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по вопросам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поминаем, что дискусс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 это общественный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просвещ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 проблемам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ритеснени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оплаты за труд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господства на юж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и в Корею с 1905 по 1945 г. Обще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предстоит выработать резолюцию для выдвижения претензий к Япони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 научное знание о том, что именно происходило в августе 1945 г., сделает эти претензии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ными и обоснованными.

Кимчи, жаренная курица, рамён

Сеул, 20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Жаренная курица по-корейски и кимчи были названы одними из любимых блюд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показал опрос.

В опро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еспонденты из 18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мира, включая Нью-Йорк, Пекин и Хошимин, в 2023 году. Он был проведен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 целью изучения осведомленности иностранцев 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Согласно опросу, 60 процентов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они «хорошо знакомы» с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й, что на 2,4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также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 по сравнению с 54,6 процента в 2019 году. Около 16,5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ов ответили, что жаренная курица по-корейски была их любимым блюдом в Корею, за ней следуют лапша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11,1 процента) и кимчи, и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ферментированные овощи (9,8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ы сказали, что ключевыми словами для описания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были «пикантный», «разумная цена» и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раститель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Около 92,5 процента опрошенных также заявили, что довольны своим опытом употреб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и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остается выше 90 процентов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подряд, также показал опро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шахматный турнир сред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и Шахматная федер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и очередной ежегодный турнир по блицу среди шахма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АСК Инфо. Как всегда, специалисты шахматного клуба федерации четко и грамотно организовали и провели весь турнирный процесс.

Результат турнира до последнего девятого тура по швейцарской системе был на интриге. Но, все-таки,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 много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области Альберт Лим, опередив других медалистов на пол-очка. Медалистами стали И Ги Су и Дмитрий Ден, набравшие одинаковое количество очков. Втор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а распределились

лишь п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у коэффициенту.

Призы были вручены и занявшим четвертое и пятое места Альберту Син и И Ен Бок, первенствовавшим в ветеранской группе Ким Сок Кан и Ри Ян Чун, в женской группе – АLINE Гон,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 Михаилу Бамбизо и Борису Син.

ЮСМО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м Ден Хван) выражает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лавному судье турнира Людмиле Марининой, руководству Шахматного клуба Шахматной Феде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онсорам турнира – Виктору Тясюевичу Ким, корейском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ю из Китая Чэнзнь Ц. (Алексей).

В плане ЮСМООК – проведение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ежегодного турнира по быстрым шахматам с контролем времени 20 минут.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ЮСМООК)

В Москве прошел предпремьерный показ фильма Тимура Хвана «Командир»

17 января этого года в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ФСБ в Москве прошел предпремьерный показ фильма Тимура Хвана «Командир»,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 САРАМ/KORYO SARAM/고려인.

Фильм «Командир» создан к 50-летию группы «Альфа». Картина рассказывает историю жизни Геннадия Зайцева,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легендар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подраздел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по борьбе с терроризмом — группы «А» («Альфа») КГБ СССР.

После показа фильма состоялось обсуждение картины. Его провел генеральный продюсер, сценарист и режиссер фильма «Командир» Тимур Хван.

Свою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фильму дали разведчица-нелегал и писательница, полковник Елена Вавилова, Герой России полковник Сергей Лысок и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ветеранов Группы «Вымпел» полковник Валерий Попов.

Участники творческой группы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 съемках, среди них –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Валерий Баринов, заслуженный артист РФ Сергей Маховиков, Кирилл Зайцев (он сыграл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Артём Ткаченко и другие.



KBS - самое влиятельное СМИ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доверия в РК

KBS названа самым влиятель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МИ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доверия.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развития СМИ за 2023 год. KBS сохраняет за собой это звание пять лет подряд. Компания получила 28,4% голосов в категории «самое влиятельное СМИ» и 24,8% - в категории «СМИ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доверия». Она опередила крупнейшие телеканалы и интернет-порталы страны, такие как MBC, YTN, SBS и Naver. Между тем, последн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снижении популярности новостных интернет-порталов в РК. Число граждан,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использовавших сайты Naver, Daum и Google для просмотра новостей, составило лишь 69,6%. Это первый за последние семь лет случай, когда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опустился ниже отметки 70%. Исследователи также отмечают сокращение доли населения, черпающей новост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 телевидению (76,2%) и радио (7%). В то же время доля граждан (10,2%), читающих новостные печатные издания, выросло. Да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с участием 5 тыс. жителей РК старше 19 лет в период с 5 сентября по 22 октября.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1,4%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Сеуле отрицают испытание Севером подводной системы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Сеуле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скептической позиции относительно заявл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ластей об испытании 19 января подводной системы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Об этом 21 января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Вероятнее всег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вела запуск торпеды,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Не в пользу Пхеньяна также говорит тот факт,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е существует аналога ядерного реактора, который можно разместить в торпедном диаметре менее одного метра. Между тем,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предупредили Пхеньян о возможности отслеживать текущую ситуацию вокруг разработки в КНДР подводного вооруж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ядерных торпед 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БРПЛ). Сеул также намерен ускорить создание комплексной многоуровневой оборонной системы в ответ на растущую ракетную угрозу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Ли Чжэ Мён раскритиковал политику правящих сил

Крупнейш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обвини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правящую партию Сила народа в действиях, оказывающих влияние на предстоящие парламентские выборы, что запрещено «Законом о выборах».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правящие силы внезапно начали представлят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законопроекты и меры по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в преддверии выборов. Такую позицию 22 января выраз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ртии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на заседании Высшего совета партии. Ли Чжэ Мён заявил, что действ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уничтожают страну», противореча концепции смягчения поляризации населения по доходу и усугубляя неравенство в обществе. Он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устранении угроз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асштаба, на обеспечении честных выборов и решении насущных проблем населения.

РК на пятом месте в рейтинге армий мира

РК заняла пят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145 армий мира 2024 года по верси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айта Global Firepower. Индекс военной силы РК составил 0,1416. Чем ниже значение индекса, тем более мощной армией обладает страна. РК поднялась на одну ступен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3 годом. В 2013 году она занимала девятую позицию, в 2014 году - седьмую, а с 2020 по 2023 год - шестую. Между те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пустилась с 34 на 36 место. В 2019 году она занимала 18 место. Оценка армии мира, Global Firepower использует более 60 критериев, среди которых численность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оличество и качество вооружений,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мобилизационный ресурс и оборонный бюджет. Сильнейшей в мире армией обладают США, далее следуют Россия, Китай и Индия. В первую десятку входят также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Япония, Турция, Пакистан и Италия.

В РК уделяют внимание продукции, производимой инвалидам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обеспечения РК сообщило о начале с 23 января консультаций в госучреждения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о вопросу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купок продукции, произведённой предприятиями, в которых работают сотрудники с тяжёлой степенью инвалидности. Речь идёт о системе,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более 1% закупок госучреждений должны приходиться на продукцию инвалидов.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о всей стране действуют 790 профи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олучивши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статус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В них работают 17 тыс. инвалидов, которые производят около 200 наименований. Вышеуказан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до 14 февраля среди лиц, ответственных за закупки.

Смартфон Galaxy S24 оснащён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представила серию своих новейших смартфонов Galaxy S. Презентация флагманской линейки из трёх моделей - Galaxy S24, Galaxy S24 Plus и Galaxy S24 Ultra - состоялась 17 января на крытом стадионе SAP Center в Сан-Хосе, штат Калифорния. «Серия Galaxy S24 открыла новую эру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выходящую за рамки эры смартфонов», - заявил Но Тхэ Мун, глава подразделения мобильного бизнеса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Как отмечают в компании, основным отличием Galaxy S24 от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синхронный перевод действует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самом устройстве. Это устраня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сторонних приложениях или облачных сервер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решая пробле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этом собеседник, при общении с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 перевод, мож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любым телефоном, мобильным или стационарным.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также прямой перевод текстовых сообщений и чат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оступны 13 языков.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обеща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крупные обновления и исправл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своей флагманской серии в течение семи лет,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её стратегии по продлению жизненного цикла мобильных устройств.

RKI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 отношении первой леди Южной Кореи поссорило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вящую партию

Принципиальная позиция нового лидера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Южной Кореи Хан Дон Хуна по поводу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жены лидеры страны спровоцировала недовольство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Чиновники из окруж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потребовали от политика уйти в отставку, на что тот ответил решительным отказом. Политологи же прогнозируют непрост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ящей партией и президентом вплоть до раскола из-за скандалов вокруг жены лидера страны.

Прошел лишь месяц с того момента, как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Хан Дон Хун ушел из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и возглавил правящую партию "Сила народа". Ожидалось, что он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волю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так как считал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реданных "лейтенантов" Юна и работал с ним еще в прокуратуре. Однако Хан сразу же доказал, что его слова о том, что будет "руководить партией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ов" и не станет слепо подчинятьс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не были пустыми.

Буквально на днях Хан Дон Хун, комментируя скандал вокруг жены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Ким Гон Хи и попытки парламента инициировать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 ее отношении, признал, что ситуация непростая и у "народа есть моменты, которые вызывают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Он дал понять, что стоит так или иначе разобраться с обвинениями в адрес первой лед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 поводу получения ею дорогой дизайнерской сумочки известного бренда. После этого Хан так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черкивал, что с этим вопросом надо разбираться с учетом мн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Отметим, что согласно опросам около 70 процентов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ддерживают идею парламента о проведении независим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первой леди.

Кроме того, Хан затем выступил в поддержку члена Чрезвычайного комитета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Ким Гён Юля, который выразил намерен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ближайши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баллотировавшись в округе Мапхо Сеула. Ким Гён Юль же недавно потребовал извинений от жены президента Ким Гон Хи за скандалы вокруг нее, выразив тем самым мнение ряда членов партии.

Стоит пояснить, что еще недавно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ь наложил вето на законопроект парламента о проведении расследований в отношении его жены. В парламенте доминиру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раждебной настроенной к президенту и правящему лагерю оппозиции. Юн назвал действия народных избранников "политическим заговором" и "попыткой дестабилизации ситуации под разными предлогами". В бытность свою министром юстиции нынешний лидер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Хан Дон Хун также решительно осуждал попытки расследований в отношении жены президента. Именно этого от него, как стало очевидно, ожидали и на новом посту, в качестве главы основ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равящего лагеря, и тут вдруг последовали такие "опportunистические" заявления, которые он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вторил. Кроме того, пошли слухи, что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также недовольны тем, как Хан управляет процессом отбора кандидатов,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номинацию от партии для участия в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10 апреля.

Эт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сильное недовольство в окружении лидера страны, тем более, что экс-министр Хан Дон Хун стал проявлять строптивость в отношен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неприятных для Юн Сок Ёля вопросов - требований оппозиции и большинства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начать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 отношении жены президента. Сам Хан Дон Хун отрицательно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о наличии у него каких-то расхождений во взглядах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президента, говоря, что партия объединяет людей с самыми разными точками зрения, а это как раз выражение плюрализма.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в окружении президента думали совершенно иначе и были отнюдь не в восторге от "широкого подхода к чувствительным вопросам" со стороны экс-министра. Судя по всему,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также был неприятно удивлен словами своего недавнего подчиненного. В прессу попа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сообщения со ссылкой на анонимные источник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оторые утверждали, что с Хан Дон Хуном лично встретился глава АП РК Ли Гван Соп и потребовал от Хана уйти в отставку с поста лидера партии.

В ответ на это Хан тут же подтвердил уже закрепившуюся за ним репутацию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за словом

в карман не лезет, а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ожет ответить достаточно резко. Это в бытность Хана главой миноста испытывали на себе депутаты от оппозиции, когда пытались давить на него, а он в ответ давал решительный отпор, теперь же это на себе прочувствовали его недавние начальники. Спустя лишь час после появления в СМИ утечек о содержании беседы с главой АП,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было попыткой окруж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усилить давление на Хана через журналистов, тот опубликовал "Официальный ответ в отношении требовани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о моей отставке". Он заявил, что намерен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ать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а для него главным ориентиром являются требования и благо народа. Если переводить это на понятный язык, то Хан сказал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не лезть не в свое дело,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окру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не является начальством для лидера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Последствия такого открытого столкнов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с главой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по чувствительному вопросу, типа следствия в отношении первой леди, придется еще оценить, однако очевидно, что Хан Дон Хун намерен доказать, что он является реальной главой партии, а не марионеткой, которой можно управлять. Это однозначно не понравится президенту Юн Сок Ёлю, которого неоднократно уличали в склонности к авторитарному стилю руководства, а также весьма чувствительной реакции, когда дело касалось его супруги. Последняя, впрочем, строит признать, сама несколько "подставилась" и могла бы избежать скандалов, но сделанного уже не вернуть.

Если анализировать подоплеку всего этого конфликта и мотивы действий "полезшего на рожон" экс-министра, то возможны разные интерпретации, которые, впрочем, не столько исключают, сколько вполне дополняют друг друга и легко могут сосуществовать.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полне может быть, что Хан просто "очень правильный", "пошел на принцип" и готов добиваться устранения любых подозрений и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кого угодно, включая президента и его жену, если для кривотолков есть основания и если на то есть "воля народ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тоит также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у Хана вполне могут быть - и скорее всего они есть - далеко идущие планы с прицелом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Согласно конституции РК, президент может избираться только на срок пять лет без права переизбрания, а потому в 2027 г. Юн Сок Ёль неизбежно сложит полномочия, а правящему лагерю придется выдвигать своего кандидата. Хан же сейчас имеет один из самых высоких рейтингов, являясь, согласно опросам, примерно таким же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как и глава оппозиции Ли Чжэ Мён. Это уже превратило Хана в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претендента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Нынешние же заявления Хана однозначно добавили ему "очков" в глазах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которая хочет разобраться с разного рода скандалами вокруг первой леди. Глава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тем самым еще поддерживает имидж принципиального "правильного" и честного политика. Данный образ также положительно влияет на имидж партии в целом, что крайне важно с учетом приближающихся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Если правящая "Сила народа" выступит там хорошо, то явно это пойдет в "плюс" Хан Дон Хуну.

В целом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скандалы вокруг жены президента спровоцировали раскол в правящем лагере Южной Кореи, что явно осложнит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ящей партией и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президента.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мы сейчас наблюдаем то, как в Корею постепенно стартует негласная предвыборная гонка с прицелом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2027 г. Конечно, до самих выборов осталось еще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времени и многое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но бывший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которог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считали "преданным цербером" Юн Сок Ёля, дал понять, что намерен и готов вести свою игру.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резидента постепенно попытаются вытеснить из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РК. Это будет не просто, учитывая мощную пропрезидентскую фракцию внутр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но движение в 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явно началось. Тем более со временем все больше политиков из "Силы народа" начнут понимать, что Юн Сок Ёль и 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ойдут от власти в 2027 г., а остальным надо будет самим гарантировать свое будущее, включая новые влиятельные посты, депутатские мандаты и прочие важные для каждого политика вещ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Года семьи необходимо организовать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звал профи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гла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еспечит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Года семьи. Такую задачу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тавил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ъявил 2024 Годом семь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а областном уровне и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проекты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Хочу настроить всех на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лад.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следу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было комфортно и удобно, люди должны быть довольны. Родные и близкие – самая большая ценность для каждого из нас. Совместное времяпрепровождение – это залог крепких отношений,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семей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Поэтому формализм здесь недопустим, – обратился к главам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си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проекте-конкурсе «Всей семьей».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будут подготовлены задания,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укрепление связи поколений и организацию совместного досуга.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необходимо вступить в сообщество проекта-конкурса в соцсетях ВКонтакте и Одноклассники. Каждую неделю будут появляться задания, среди которых, например, вместе приготовить ужин, устроить киносеанс, заняться спортом или нарядить ёлку. Фотоотчёт о выполнении надо опубликовать в своих соцсетях с хештегами #всейс семьей и #всейс семьей65. За них участникам будут выдавать электронные вкладыши.

Среди семей каждый месяц будут разыгрывать ценные призы, а в конце марта – финальное награждение активных участников. Среди подарков в том числе семейные туры по России. Участники, выполнившие все задания, получат эксклюзивную коллекцию электронных вкладышей от талантливых российских иллюстраторов.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приобрели для пя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овременные автобусы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передачи ключей от современных автобусов марки «ПАЗ». Автобусы, работающие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будут курсировать по внутримunicipальным маршрутам в Ани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Холмском и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ах. Всего в 2023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приобрели 253 единицы транспорта, из них 25 сегодня переданы в указанны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лично поздравил жителей районов в лице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и водителей автобусов.

– Друзья!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обновить парк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 опорой на отечественн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Ежегодное обновление техник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звал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приоритетов в развити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Мы проводим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в этой части. Закупаем новые автобусы для городских и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х маршрутов. В приоритете –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е автобусы, которые не загрязняют воздух. Сегодня передаем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25 таких машин. Уверен, новые автобусы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более удобным для людей.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с этим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автобусах предусмотр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возки людей, передвигающихся на инвалидных колясках. Кроме того, машины оборудованы кондиционерам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табло, громкоговорящими и камерами. Окна с повышенной морозостойкостью защитят пассажиров от минусовых температур. Автобусы смогут перевозить 59 человек одновременно.

– Данные автобусы являются самыми вместительными в своем классе. При этом они имеют довольно приличный запас хода. На одной заправке топливом машины могут проехать до 500 километров, –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у Максим Пьяных,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группы ГАЗ.

– Очень понравились автобусы. Стильные, современные. Всегда приятно работать на новой, красивой и надежной технике. Уверен, наши пассажиры тоже останутся довольны, – поделился эмоциями один из водителе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риобрели для региона 275 автобусов, 253 из которых –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В эт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ую агломерацию будет поставлено еще 69 автобусов. Кроме того, в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обрести дл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ов около тысячи единиц коммунальной техник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ла на ВДНХ свои достижения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на выставке-форуме «Россия» на ВДНХ в Москве прошёл День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В нём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делегация от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которую вошел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фи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Отраслевой день начался с заседания коллег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КХ России. Выступая на нём, вице-премьер РФ 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главной целью работы стройотрасли является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жизни граждан, так как именно человек – главный капитал нашей страны. О достижениях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за 20 лет рассказал Ирек Файзуллин. Глава Минстроя отметил, что объём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за это время выросли более чем в 2,5 раза.

– С 2020 года в регионах было введено более 387 млн кв. м жилья, из них более 110 млн кв. метров – в 2023 году, что стало абсолютным рекордом.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за четыре года улучшились более 15,7 млн семей. Разработана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о 2030 года с прогнозом до 2036 года, главные приоритеты которой –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граждан и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Строительная отрасль продвигает активный рост.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постоянному вниманию к отрасли и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Хочу также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плодотворную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Ф, федеральны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строителей. Много сделано, но ещё больше предстоит сделать. Перед Строительным комплексом поставлены серьёзны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над которыми нам ещё предстоит работать, – отметил 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На площад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или ролик о достижениях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и ЖКХ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За это время в регионе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расселено 22,6 тысячи жителей. Гости выставки увидели масштабные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лаконично сочетаются с пейзаже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Наш регион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по расселению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За этот же период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2,3 миллиона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ходит в десятку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по объёму возводимого жилья.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построен самый большой аэровокз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рупнейший в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аквапарк с бассейнами, 33 объ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28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25 крупных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и множество других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скусственной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3200 метр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манеж,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й и нефтегазовы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парк, мировой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10 нов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потенциал области – 10 миллионов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Организаторы дн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стенд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готовили интерактивную программу. Так, ученики детского технопарка «Кванториум» с помощью робототехники предлагали гостям собрать стену из кирпичей. За участие в интерак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едлагались подарки – брелоки в виде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из переработанных пластиковых крышек.

Для любителей зрелищности на стенде в очках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гости выставки смогли увидеть 3-D модель строящегося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и студенческое общежитие начали возводить в 2023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Масштабность, красоту, 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ь мирового кампуса оценили самые юные гост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форум «Россия» – это важнейшие достижения страны, собранные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времени проведения выставки гостей ждут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сыщенная деловая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ы. Посетителям представлены экспозиции 89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едущих федеральных ведомств, корпорац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овая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ая полоса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отова более чем на 45 процентов

Новая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ая полоса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отова более чем на 45 процентов. По завершении работ она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воздушные суда всех тип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значимости.

Действующая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ая полоса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ведена в строй в 1964 году. Она не была рассчитана на сейсмичность в девять баллов. Сегодня ресурс концевых участков полосы исчерпан.

– Реконструкция не давала возможности кардинальн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Через пять-семь л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водить ремонт возникла бы вновь.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 построить новую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ую полосу. Его поддержа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овая полоса будет на 15 метров шире действующей. Это позволит принимать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воздушные суда. Объект строи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афиком.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эксплуатация новой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начнется в 2025 году. Вместе с современным аэровокзальным комплексом, который мы запустили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она будет долгое время обеспечивать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нашего региона,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Полная длина полосы – 3400 метров. До начала холодов строители выполнили большую часть работ по укладке верхнего бетонного покрытия. Осталось построить еще около 800 метров полосы. Но это дело не исчерпывается. «Бетонка», которая использует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для посадки и взлета самолетов, – это примерно треть всего проект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масштабный объем работ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навигационного и светосигна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истемы сбора и очистки дождевой и талой воды, созданию рулежных дорожек.

– Сейчас мы строим фундаменты и эстакады, на которых вскоре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новые локаторы и радиотехн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 плану в марте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удет самолет-лаборатория. Он выполнит облет аэропорта и подтвердит, что все новые системы находятся в рабочем состоянии, исправно обеспечивают безопасность полетов. Это дас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демонтировать действующие локаторы и друг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находится в зон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ы по прокладке полосы,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Дирекции програм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горь Крууз.

Специалис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благодаря вводу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ой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а также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ам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леты по метеоуслови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удут отменяться гораздо реже.

Президентский фонд «Круг добра» помог сахалинским детям с тяжёл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20 сахалинских детей с редкими тяжёл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здоровья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от федерального фонда «Круг добра». Из 89 патологий, внесенных в перечень для оказания лечения, 9 выявлены у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островитян. Организация обеспечивает их необходим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для лечения и поддержания состояния. Фонд создан по реш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дна из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получает помощь фонда с 2022 года. У 12-летней дочери Насти редкое генетическое заболевание – ахондроплазия. Такая патология встречается у 1 из 40 тысяч новорождённых и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нарушением процесса роста костей скелета, которое приводит к карликовости.

Необходимый препарат для лечения ахондроплазии появился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в 2021 году. Лекарство стимулирует рост костей и даё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ежегодный прирост в размере 1,57 сантиметра. Стоимость годового лечения – 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За время приёма препаратов Настя выросла на 7 сантиметров – это отличный результат. В лечении нам помогает президентский фонд «Круг добра», детская больница, дет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аждый день, когда я открываю холодильник и беру новую ампулу с препаратом, я мысленно благодарю каждого за помощь и труд, – рассказала мама Насти.

Любимое увлечение девочки – балльные танцы. Анастасия занимается ими уже 9 лет, регулярно участвует в конкурсах и областных чемпионатах. Зимой семья катается на лыжах, летом на роликах. Мам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помогают укрепить слабый каркас, а это во многом определяет ход лечения.

– Препарат ставить совсем не больно, это уже регулярное занятие. Сейчас я уже могу дотягиваться до бытовых предметов, хотя всего год назад приходилось постоянно вставать на стульчик, – поделилась Настя.

Помимо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организация обеспечивает сахалинцев средствами реабилитации. В этом году ещё одна пациентка, 18-летняя островитянка, получит дорогостоящий аппарат для передвижения по дому.

Двое детей с онк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находятся в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центре имени Блохина. Одному из них установили раздвижной эндопротез, второму ребенку оформлена заявка на дорогостоящий препарат для получения в федеральном центре.

– Если у ребёнка выявляется сложное заболевание, родители могу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тправить первичную заявку на сайте «Круг доб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 со всеми структурами выстрое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при выявлении каких-либо нарушений, мы узнаём об этом в числе первых и начинаем сразу работу с родителями: собираем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вводим все данные в базу, отслеживаем результаты,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рина Хегай.

Для выявления редких генет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с 2023 года проводится расширенный неонатальный скрининг на 41 заболеван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год обследовано более 4600 новорожденных. Из них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оведена 45 детям, диагноз подтвержден у 8 малышей, дорогостоящее лечение получает 1 ребенок.

Напомним, фонд «Круг добра» был создан в 2021 году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2023 году на лечение было выделено 76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Средства в фонд поступают за счет повышенного НДФЛ для граждан с доходами от 5 млн. рублей в год. Больше 23 тысяч дете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лучили помощь федерального фон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 제3차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실시

- 평창 등 강원도서 겨울 체험...21개국 264명 참가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18~24일 강원도 평창 등지에서 '제3차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동계)'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21개국에서 264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국 문화체험을 통해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기회를 갖는다.

(국가별 연수참여 인원)

구분	국가	인원	구분	국가	인원
중남미 (4개국, 18명)	아르헨티나	6	아시아 (8개국, 159명)	인도네시아	22
	브라질	7		베트남	54
	콜롬비아	1		필리핀	13
	파라과이	4		태국	3
대양주 (3개국, 31명)	호주	30	말레이시아	6	
	뉴질랜드	3	중국	58	
	브루나이	1	일본	2	
CIS (2개국, 41명)	카자흐스탄	12	유럽 (2개국, 4명)	대만	1
	러시아	29		프랑스	2
북미(1개국, 7명)	미국	7		이탈리아	2
아프리카(1개국, 1명)	가나	1			
총 21개국 264명					264

1, 2차 연수는 하계 기간(7월~8월) 시행 완료
 모국 연수사업은 차세대 동포(14~18세)를 대상으로 모국의 사회, 문화·역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한인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동계 연수는 모국의 역사·문화 체험과 함께 겨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이번 동계 연수에서는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개회식을 열고,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며, 도전 골든벨 한국어 게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람 및 응원 활동 등을 한다.

19일 열린 개회식에서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 및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 청소년들도 재외동포 사회에서 빛나는 리더로 성장하고, 자랑스러운 모국과 함께 상생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개회사를 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언제 어디서나 통화료 부담 없이 동포 민원 상담을!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대상 카카오톡 민원 상담 서비스 시범 개시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별도의 국제 통화료 부담없이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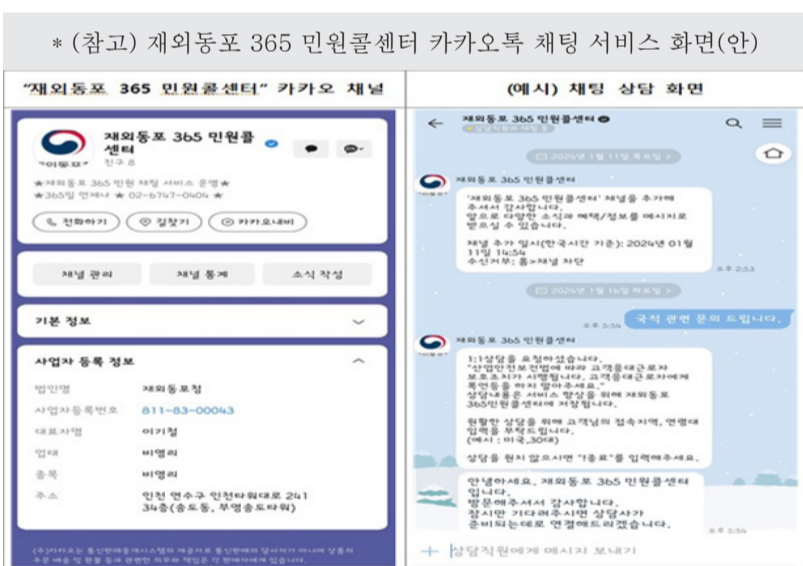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이 서비스를 1월19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5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광화문 소재) 개소와 더불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02-6747-0404)'도 동시에 개통, 재외동포에게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콜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비싼 국제통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센터는 이번에 카카오톡을 이용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전화 상담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에서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를 검색하여, 손쉽게 채팅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센터는 향후 채팅 상담 외에도 재외동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화(웹콜), 온라인



채팅(웹챗) 등 다양한 채널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재외동포가 통화료 부담 없이 좀더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K-HED) 마지막 수료식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재외동포 국내 초청연수' 프로그램 2024년부터 폐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고 국립공주대학교가 주관하는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K-HED)' 마지막 수료식이 1월 18일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열렸다.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K-HED)'는 재외동포 국내 초청연수 프로그램으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지원으로 1962년에 시작됐으며, 국립공주대학교가 2009년부터 위탁·운영해 왔다.

K-HED은 지난 60여년간 11,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재외동포 장기초청 교육과정으로 한국어·한국 역사·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대학(원) 진학 지원, 한국학생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2024년부터 폐지된다.

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2023 K-HED 가을·겨울과정 통합 수료식'에서는 국립공주대학교 교무처장, 재외동포교육센터장,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본국사

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수학준비과정(가을)과 한국어 해과정(겨울) 수료생 총 89명이 수료했다.

지난 9월에 입학한 대학수학준비과정(가을) 교육생과 12월에 입학한 한국어해과정(겨울)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동안 한국어, 한국 문화·역사 교육, 유명인사특강, 현장체험학습, 문화체험, 한국학생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고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김현아(20세, 러시아) 양은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가 마지막 수료생이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수료 소감을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은 아니겠으나, 착하게 살았더니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선인선과(善因善果)라고 합니다. 착한 일이 원인이 되어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으니까요.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그런데 전에 불교에 관한 책을 읽다가 선인선과라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을 들켰다고나 할까요. 그 책에는 이런 말이 담겨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인선과를 믿으면서 착한 일을 하면 복권이라도 당첨될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으며, 자신이 행한 선만큼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말이었습니다. 하긴, 당연한 일입니다.

선도 일종의 저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축을 하면 저축한 만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갑자기 엄청난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와 있다면, 분명 잘못 송금된 돈일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더 큰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선을 쌓아둡니다. 계속 저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행위를 적선(積善)이라고 합니다. 적선은 단순히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선을 쌓아 나중에 다칠지 모르는 위험 또는 아픔에 대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자신에게 작은 행운이 올 때는 주변의 더 어려운 이에게 양보한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변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작은 행운에 내 선을 쓰다보면 선이 모이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이런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선은 더 커집니다. 선이 쌓이는 것은 그래서 더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이 모두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주변에서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꼭 참견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참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작은 일을 굳이 나서서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길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면 무조건 다가가서 어디를 찾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쩌면 제 도움 없이도 잘 찾아갔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는 곳까지 최대한 같이 가주기도 합니다.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들어드릴까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실제로 들어드리는 경우는 드물습니다. 지하철의 자리양보는 당연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있으면서 일부러 자리를 비워놓기도 합니다. 힘들지 않은데 굳이 앉아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자기자랑처럼 보여 썩스럽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한 것은 며칠 전의 일 때문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길이 막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할 사정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약속이 있어서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에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짐을 실어주고, 우리를 차에 태워 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두리번거리는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갈 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시간을 맞추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말이 선인선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무심코 했던 많은 행동이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시 선을 쌓아야겠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쌓은 선은 쓰지 말고 주변에 양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인이 선과가 되는 장면은 어쩌면 제게는 힘든 일이거나 아픈 순간일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착한 일을 하고 무사히 사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겠네요.

한편 가끔 자신은 그다지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큰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유산 같은 겁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쌓아놓은 선이 내게로 와서 복이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유산이 아니라 빛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빛을 남겨놓으면 후손에게 악과(惡果)가 생기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모두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마음으로 조심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선을 잘 쌓아야겠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На сахалинской TOP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явится гостиница для экстремал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явится новый гостиничный комплекс на 235 номе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ъект построит новый резидент TOP – компания «Гамма».

«Гостиница расположится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сновными клиентами станут любители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спорт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 гостиничном комплексе будут предусмотрены номера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в том числе, и паралимпийцев. В проекте предусмотрен встроенный ресторан и конференц-зал.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ый объект планируют в конце 2027 года.

지역 창작 전시회에 주민들 초대

장식 및 조각 공예가들이 사할린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해 '사할린의 전통' 새로운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회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박물관에서 1월22일(월)부터 28일(일)까지 열린다. 관람객들은 도자기를 비롯해 가죽, 모피, 목재, 상아, 에폭시 용액, 비즈로 만든 작품들과 '로스쿠트니 섬' 퀵스튜디오의 창작품을 볼 수 있고, 사할린을 주제로 하는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다.

" 한 주 동안 사할린에 거주하는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의 조각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으며, <북방의 리듬> 악기 연주> 체험교실에도 참여하고, 남호족의 구전민요를 모티브로 한 <브루스니츠니 콜로콜치(월굴나무 종)>만화영화도 볼 수 있고, <디지털 민속 박물관 '조상의 흔적'> 기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가상 견학도 할 수 있다."고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 논나 라

브리크 장관이 전했다.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구슬의 멜로디> 기념품과 <수호신 인형>부적 만들기와 도자기로 만든 물고기 및 나무 손가락에 그림 그리기에 따른 활동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행사는 매일 진행된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выставку региональ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Мастер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новую выставку «Сахалинские традиции».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пройдет с 22 по 28 января в здани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Посетители увидят работы из керамики, кожи и меха, дерева, кости, эпоксидной смолы, бисера, творчество квилт-студии «Лоскутный остров», а также с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сувенирную продукцию сахалинской тематики.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посетители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культуро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роживающ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участвуют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Наигрыши на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Ритмы Севера», посмотрят мультфильм «Брусничный колокольчик» по мотивам фольклора нивхов и посетят виртуальную экскурсию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иртуальный этно-музей «Следами предков», –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Жители и гости региона смогу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сувенирной продукции «Мелодия бисера» и оберега «Кукла-подорожница», росписи керамических рыбок, деревянных ложек. Интерактивы запланированы ежедневно.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들, 가정에 더 많은 시간 할애 중요하다고 생각

러시아 국민들에게 가정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고 '웨베르' 사회학 연구소가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의 87%가 더 많은 시

간을 가정에 할애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고, 86%가 가족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7%의 국민이 자신의 혈통가계도와 출신 및 자신의 가족의 역사를 알고 있고 42%는 친족들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만 알고자 했고, 18%는 그들의 가정에 가족사와 특별한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61%의 국민은 그들의 가정에 몇 세대에 걸쳐 사진을 모아둔 사진집이 소중히 보관돼 있고, 23%가 대대로 전해지는 가보가 있다고 했다.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은 자신의 성, 이름, 부칭에 만족하고, 응답자 중 90%가 자신의 이름을 좋아했으며, 83%가 성을, 92%가 부칭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Большинство россиян считают важным уделять семье больше времени

Среди россиян провели опрос, в котором выявили их отношение к семейным ценностям.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е агентство «Вебер».

Как следует из результатов опроса, 87% россиян считают важным уделять семье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времени. 86% стоят на том, что нуж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с родными теплые отношения.

Выяснилось, что 47% жителей знают историю своей семьи, в том числе генеалогическое древо и происхождение. Еще 42% не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у родных о семейной истории, но хотят ее изучить. 18% сказали, что в их семье присутствуют те или иные традиции.

61% россиян бережно хранят фотоальбомы, в которых собраны фотографии нескольких поколений их семей. У 23% есть реликвии, которые передаются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Абсолютное большинство россиян довольны своим ФИО. Собственное имя приходится по душе 90% респондентам, фамилия 83%, а отчество 92%.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пятница 18-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